

구역부에서는 사랑방을 통하여 벨렐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며, 주님의 몸된 지체를 건강하게 이루는데 윤택유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사랑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소식지에 실릴 교구/사랑방 소식이나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고는 구역부 메일함 혹은 이메일 (SMALLGROUP@BETHEL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위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랑방 사역: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5 개의 지역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중앙) 안에 20 개의 교구가 있으며, 70 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구역부 사랑방 소식지팀
 담당 목사: 조명재



백신종 담임목사님 칼럼

영적인 아폽토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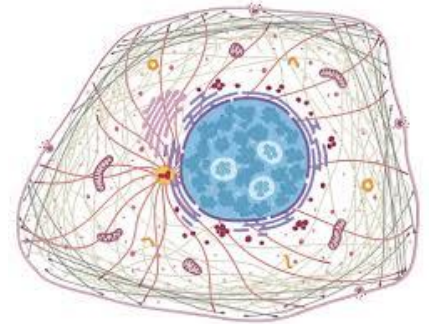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세포의 죽음에는 아폽토시스(apoptosi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노화된 세포나 생체에 유해한 변형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시계에 의해서 스스로 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는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고 살아 있는 세포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명은 세포의 끊임없는 죽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시계에 의해서 죽어야 할 세포가 끊임없이 생존하거나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양 혹은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교회의 소그룹 조직을 때로 셀(세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벨렐교회에서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락방, 목장, 초장, 구역 등 이름은 다르지만 소그룹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때가 되면 해체되어 다른 세포에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소그룹이 자기 해체를 거부하고 끊임없는 생존과 성장만 추구하면 영적 무기력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9 년 새해에 사랑방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목회진과 구역부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행전적 사랑방을 추구하고 그런 교회가 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것을 벨렐교회의 "영적인 아폽토시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포가 자신을 죽여 새로운 세포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벨렐교회 사랑방이 이 영적인 아폽토시스의 원칙에 충실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또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식지는 벨렐교회 WEBSITE (WWW.BETHELCHURCH.ORG) 에서 교구/사랑방 사역 PAGE 밑에서 ELECTRONIC VERSION 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벤엘 프라미스센터 완공 !!

Praise the Lord!

오랜 기다림과 기도의 제목이었던 차세대를 위한 예배와 교육의 공간 벤엘 프라미스센터(BPC)가 완공되어 지난 11월 11일 입당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건축에 관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함께 드린 입당예배에서 이준영(Jun Lee) 장로가 영어로 건축 진행 보고한 것을, 영어 예배부의 Hannah Yim 집사가 한글로 번역한 글을 간추려 밑에 소개합니다.



건축 진행 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7년간 있었던 여러 건축에 관한 일들을 단 3분동안 간추려 보고를 드리자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제 아이들 생일 때 간혹 싱겁긴 하지만 시로 글을 지어 읊어주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벤엘 프라미스센터 첫 공식일인 오늘, 진행 보고를 부족하지만 제가 지은 시 형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것은 2001년 무렵.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앞으로 우리 뒤를 이을 후손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 예배당, 교실, 친교실, 또 그밖에 다른 용도의 공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건축위원회가 형성되고 많은 영감을 얻기까지, 김세웅 장로님의 영적 지도와 수고가 담겨 있었지요. 세 곳의 유능한 건축회사들을 상대로 설계 초안을 위임하고 최종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특히 한 회사가 돌보았지요. Alexander Design Studio의 Charles Alexander 대표님과 Eric Lewis 씨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와 지난 오랜 세월을 몇 번의 디자인 재수정 등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Charles 씨, 잠시만 제가 여기서 한 점의 편견없이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우리 교인 Grace Pak 씨를 고용한 뒤 모든 일들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2003년 무렵 우리는 비록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야심찬 건축을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유능한 변호사 Sang Oh 씨와 토목 전문기사인 Rob Vogel 씨 덕분에 구역설정 과정을 잘 안내 받았지요.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록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 건축 프로젝트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2009년에 들어서 지일훈 장로님의 주도하에 교회는 새 힘을 얻어 건축위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요.



그 후 몇 년 동안은 건축 진행에 빠른 진전이 있었지만,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과 비용 상승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행히 카운티 정부 임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통해서 기존 사이트 개발계획 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더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지요. 주님의 비전은 프라미스 센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훨씬 더 큰일을 위해서 사용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오래 지속되는 비전, 즉 지금부터 오래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가족이 번창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교육의 밑받침으로 닦아진 교회,
하나님의 빛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교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뒀을 때,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셨습니다. 신속히 Whiting Turner 건축회사를 보내주셨고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Whiting Turner 팀은 모든 일을 미루지 않고 꼼꼼히 추진시켰죠. 건물 착공부터 마무리까지 지난 18 개월 동안 신속 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 건축은 탄탄한 재정지원과 관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의 예산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준비한 액수였고, 대부분의 은행들로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Bank of Hope 가 저희의 제안을 특별한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셨고, 은행 이름처럼 희망과 믿음으로 현실적인 재정 지원에 동의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남달랐습니다. 하나 하나의 시험과 차질을 겪을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며 계속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방 소개

복서 1 교구 2 사랑방 - 이광수 사랑방장

허언약 선교사님과 함께

네팔 국경 지역의 깊은 히말라야 산골 티벳 난민 마을 곳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지난 10 년간 아내와 네 따님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허언약 선교사님께서 둘째 따님과 함께 지난달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2017 년 시작된 사랑방과 선교사 연결 사역으로, 사랑방식구들이 처음으로 한 분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사역내용을 간간히 나누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보낸 선물을 받고 선교사님 온가족이 웃음꽃이 "뽕" 터지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는 의외에 감사의 답장을 받고, 이런 작은 표현과 관심이 선교 오지에 계시는 가족분들께 큰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10 년차 안식년을 맞이해 둘째따님과 방문하신것을 기념해 저희 사랑방은 깜짝 기념파티(?)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오직 한길 네팔 산골





티벳 난민을 섬기신 선교사님의 지난 10 년의 일상을 솔직하고 소박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 선교사님의 지난 10 년의 열매를 들으며 다시 도전 받고, 선교 전선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내는 후원과 기도로 적으나마 함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축복을 사랑방 식구들과 나누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시는 선교사님가족, 특별히 네 따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복서 3 교구 1 사랑방 - 박소희 사랑방장, 글쓴이 신희숙 집사

저희 사랑방은 10 가정이나 모이는 가정이 풍성하고 든든한 사랑방입니다. 10 가정 모두 교회의 중심에서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의 모습들이 엿보이는 귀한 가정들이랍니다. 1, 2, 4 부 찬양대, 세계선교센터, 한글학교, 수요여성 기도회 팀장까지.... 벨엘의 여러 곳에서 두루 맡아 봉사하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

우리 사랑방의 자랑이자 특별한 것이 있다면, 누구나 차례대로 순서가 되면 사랑방장을 맡는 것이지요. 1 년씩 돌아가면서 리더가 되어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지요.

첫째: 리더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동안 어느덧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고,

둘째: 영적으로 한발 더 주님 곁에 다가서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셋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있기를 힘쓰다 보니 영안이 조금씩 떠지는 느낌이랄까...

부족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가지 더 빼놓을수 없는 자랑거리는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기도제목까지 함께 나누며,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영으로 교제하는 귀한 사랑방이라고 자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방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약속드리며 기도합니다.



구역부에서 알리는 말씀

소식지 앞면 담임목사님 글에서 언급된 것 같이, 2019 년도에는 교구/사랑방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단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중양교구와 특성 사랑방 (예를 들어, 여자들만 모이는 사랑방)은 재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사랑방 재편성은 주로 집주소를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나이, 자녀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며 12 월 말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함께 오랜 사랑방 생활을 하시며 정도 들고 서로 편안해진 사랑방 식구들, 하지만 새로 만나 영적 가족을 이루어나갈 새로운 도전에 다 함께 아멘 하시며, 주님이 이루실 뜻을 기쁨과 순종으로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사랑방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개편을 계기로 사랑방에 속하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